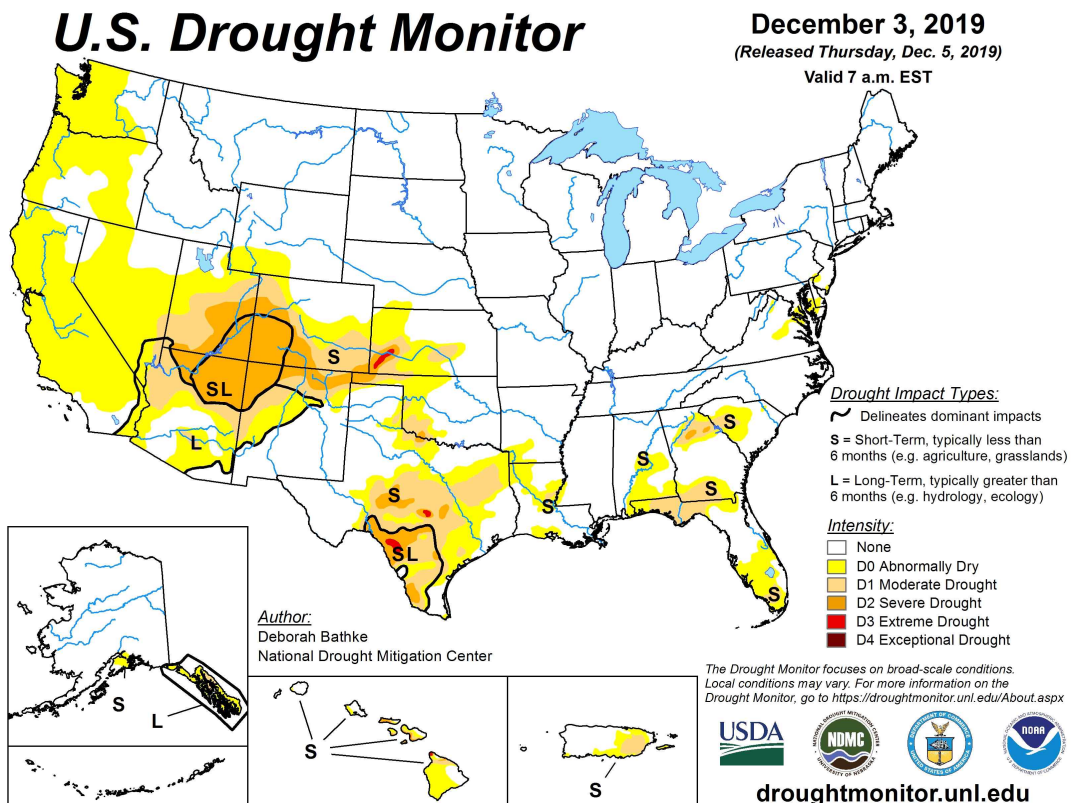


12월 1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89)

□ 미국 기후 현황(12/1~12/7)

중서부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지만 옥수수 벨트 북부는 전역에 계속 남아 있는 잔설 때문에 남북 다코타에서부터 미시간까지 늦철 옥수수와 콩의 수확 노력이 계속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한편, 중간 구역은 날씨가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건조하여 고원 북부는 전역을 덮고 있으면서 겨울밀을 보호해주고 있던 적설이 녹아내리고 있었고, 평원 중부와 남부는 가뭄에 영향을 받은 방목지, 초지, 겨울밀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서부의 몇몇 산악 계곡을 제외하면 사실상 미시시피 강 유역부터 서쪽으로는 정상 근처 또는 정상보다 높은 기온이 우세하였다. 고원 북부에 산재한 여러 장소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았지만 북동부와 플로리다 반도의 많은 곳들은 평년보다 최소 5° F 낮았다. 북동부는 큰 눈보라가 겹치면서 날씨가 추워졌다. 북동부 일부에서는 12월초 총 강설량이 1-2 피트 이상이었다. 하지만 남쪽 멀리 플로리다 일부에서는 단기 가뭄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었다. 동부의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에는 대체로 가벼운 비가 내렸다. 다른 곳에서는, 서부 전역의 날씨가 - 특히 주 후반에 - 다시 폭풍이 잦아졌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에 가장 심했던 강우 중의 일부가 고지대에는 눈을 뿌리면서 내렸다. 북서부 일부에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오레곤, 워싱턴, 아이다호 북부 일부에는 쌓인 눈이 12월 초 평균치 대비 50 % 미만이 남아 있었다.



### □ 농업 현황 요약(12/2~12/8)

주중에 나라 대부분에 내린 강우량은 평년보다 적었다. 반면, 극서의 많은 곳들과 북동부 일부에는 평년 이상의 강우가 내렸다. 캘리포니아 일부에는 최소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로키산맥과 대평원의 많은 곳들에서 주간 온도는 평년보다 3° F 이상이었고, 몬타나의 어떤 지역들은 기온이 평년보다 9° F 이상이었다. 대서양 중부, 북동부, 남동부 지역은 기온이 평년 이하였다. 북동부, 플로리다, 와이오밍 일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6° F 이상 낮았다.

### □ 세계 기후 현황(12/1~12/7)

■ 유럽: 유럽 대륙의 많은 곳들은 날씨가 더 추워졌는데 남부와 북부 대부분은 비가 오는 날씨였던 반면 그 밖의 지역은 더 건조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대체로 비가 오는 날씨 패턴으로 묶여 있었던 저지 고기압이 약해지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좀 더 추운 공기가 유럽의 많은 곳으로 퍼지게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부터 남동쪽으로 발칸 반도까지 지난 주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평년보다 최대 3° C까지). 더욱이, 프랑스에서부터 동쪽으로 7일간 평균 기온이 5° C 이하 (겨울 작물의 휴면을 나타내는 지표)였고 반면에 발칸 반도에서는 강한 동결 (밤 시간 기온이 -11° C 정도로 낮음)이 발생하여 겨울 밀과 유채가 서둘러 휴면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겨울 작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로 휴면에 들어간 것은 10월과 11월에 비가 아주 많이 내렸던 것에서 일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축축한 상황이 늦여름 작물의 수확 및 기타 계절 야외작업을 방해했다. 지난 주에 거의 모든 유럽에서는 가벼운 소나기 (1-5 mm)가 눈에 띄기는 했지만 북부와 발트해에 인접한 작물 재배지를 포함하여 스페인에서부터 동쪽으로 그리스와 발칸반도 서쪽까지 강우가 가장 심했다 (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전반적으로 수분 공급량은 계속해서 겨울작물들에게 적당하거나 풍부했다. 다만 폴란드의 중부 및 북동부 뿐만 아니라 독일 남부와 동부에서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평년 대비 50% 미만)가 발달하고 있었다.

■ 호주: 동호주에는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최근에 심어진 면화와 수수에 도움이 되는 지역의 수분 공급량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그 지역의 많은 부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장기 가뭄이 계속되었고 영양 성장 중인 여름작물들은 건조에 시달렸다. 동호주에서는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들의 수확이 계속되었고 더 건조한 지역들에서는 야외작업이 밀리지 않고 진척되었다. 밀 벨트 내에서 그 밖의 지역들로서 남호주와 서호주는 전체적으로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겨울 작물들의 건조를 도우면서 밀, 보리, 캐놀라 수확을 중단 없이 촉진하고 있었다. 서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6° C 높았고, 호주 남동부는 2-5° C 낮았으며, 호주 북동부는 평년 근처였다.



■ 아르헨티나: 중앙 아르헨티나는 최근에 유익한 비가 내린 이후에 날씨가 좀 더 건조해지면서 여름 곡류와 유지 작물들의 파종을 도왔다. 코르도바 북부 및 중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부 일부에 총 10-25 mm의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엔트레 리오스와 산타 페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지역들 전체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근처이거나 약간 낮았지만 라 팜파와 산타 페 남부에서부터 북서쪽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종종 낮은 및 중간 섭씨 30도대에 도달하여 증발로 인한 수분 손실량이 계속 높았다. 먼 북쪽은 살타에서부터 동쪽으로 코리엔테스를 지나기까지 적당한 또는 심한 소나기 (25-5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리면서 면화를 포함하여 여름작물들의 발아와 활착에 필요한 수분을 증가시켜 주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12월 5일 현재 작년의 98 % 대비 93 % 파종되었다. 옥수수와 콩은 각각 56과 55 % 파종되었고 면화는 73 %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작년과 동일한 속도로 44 % 수확되었다.

■ 브라질: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들에서는 계절 강우가 계속되었다. 북부의 농업 지역에서는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서바히아까지 총 25에서 50 mm 이상 강우가 내렸으며 먼 북동쪽 내륙 (피아우이와 마란하오) 날씨가 다소 더 건조했다. 여름 더위 (낮 최고 온도가 종종 섭씨 30도대 중반까지 올라감) 때문에 콩과 기타 여름작물들의 수분 수요가 높게 유지되었다. 미나스 게라이스 남쪽의 커피 지역에 폭우 (100 mm 이상)가 내리기는 했지만, 브라질 남동부 (파라나에서부터 상 파울로까지)에서는 비슷한 양의 강우가 기록되었는데 사탕수수는 물론이고 옥수수와 콩에 도움이 되도록 사정들을 개선해주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4일 현재 1차 파종 옥수수와 콩은 각각 45와 27 %가 생식 성장 및 중실비대 기간에 도달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는 덥고 다소 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12월 5일 현재 옥수수와 콩의 파종 비율은 각각 88 및 83 %였고 옥수수의 50%가 생식성장 및 중실 비대 단계에 있었다.